

15_39_한국어_鷄塚

니와토리즈카 고분

니와토리즈카 고분은 예부터 지역의 심볼로써 사랑 받아 왔습니다. 이름의 유래는, 이 고분에서 불사를 행했을 때 연주한 아악의 음색이 닭소리와 비슷해서 「니와토리즈카-닭 고분」이 됐다는 등 여러 전승이 있습니다. 전교대사 사이초가 법화경을 매납한 고분의 하나라는 등 사이초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

그러나, 발굴 조사가 행해지지 않아서,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. 단지, 현지에서 채집된 토기의 파편 등으로 미루어 보아 A.D.5 세기 무렵의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